

## 옛 도읍으로 가는 길

### 개요

7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 초기의 일본정부는 권력의 집중화 및 수도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와카사국(와카사노쿠니)의 경우, 해안에서 소금과 해산물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도로가 건설되었고 지방 행정을 위한 관청도 설치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도로변에는 많은 사원과 신사도 설립되었습니다.

### 상세 정보

#### 도로와 역참

호쿠리쿠 도로는 고대의 수도(현재의 나라현과 후에 교토)와 멀리 떨어진 지방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 6개의 주요한 도로 중 하나였습니다. 와카사는 일본해의 항구로 가는 길인 호쿠리쿠 도로변에 위치한 최초의 구니(국, 國)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니란 율령국으로 당시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비와코를 넘어 호쿠리쿠 도로를 따라 여행하던 사람들은 갈라져 와카사로 가거나 그대로 쪽 북쪽으로 쓰루가 쪽 해안선을 따라 현재의 니가타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각 지방과 수도간 효율적인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신들은 중앙 정부로부터의 명령, 지방 지배자로부터의 보고 및 긴급문서를 운반했습니다. 공용 말은 이 길을 따라 약 16km 마다 배치된 역참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奈良)에서 발굴된 세금과 공물을 위한 목제 패에는 4개의 역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편, 10세기의 관습과 공식 절차를 편찬한 엔기시키(延喜式, 연희식)에는 3개의 역참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정부 관청

와카사국은 701년에 새로운 행정제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치되었고, 이 새로운 행정제도 아래 전국은 국(国), 군(郡), 리(里, 후에 향)로 분할되었습니다. 다른 행정구분에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몇 개의 관청이 설치되었습니다. 국의 관청은 수도에서 파견된 관리들에 의해 운영되었고, 군의 관청은 지방의 유력한 가문에서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관청 터에서 출토된 유물에는 주춧돌과 기와부터 도자기와 동전, 벼루 등과 같은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사원

불교는 6세기에 아시아 대륙에서 일본으로 전해졌고, 그 후 곧 불교사원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와카사의 최초 불교사원은 7세기 후반 무렵에 건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지 절터에서 출토된 기와의 분석을 통해 고도지가 이 무렵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와카사진구지는 신도와 불교가 융합된 종교시설로서 714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와카사진구지는 나라(奈良)의 도다이지에서 유명한 오미즈토리(물 깃기) 의식 10일 전에 행해지는 오미즈오쿠리(물 보내기) 의식으로 유명합니다. 이 의식은 성스러운 물을 상징적으로 도다이지로 보내는 행사입니다. 와카사진구지 발굴조사에서 8세기의 황궁이었던 헤이조 궁과 같은 스타일의 고대 지붕 기와가 발견되면서 나라(奈良)와의 관련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741년 쇼무 천황(701년~756년)은 불교를 전파하여 나라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각국에 고쿠분지(국영 사원)를 설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와카사코쿠분지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807년에 와카사국에 건립되었습니다. 초기의 건축물은 소실되었지만, 당시의 절터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전시품

전시된 유물과 문서들은 와카사에서 옛 도읍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길의 중요한 역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와카사코쿠분지나 고도지 절터 등에서 기와조각이 출토되었고, 도자기, 동전, 종 등의 생활용품도 옛 마을과 역참, 관청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에도 시대(1603년~1867년)에 재판된 엔기시키에 와카사국의 행정제도에서 지위를 논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다이지 문서에는 와카사진구지의 오미즈오쿠리 의식 후에 행해지는 오미즈토리 의식에 관한 상세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